

# 재한일본인처의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코드스위칭의 실태\*

박 양 순\*\*

yangsun2@hanmail.net

## 〈 目 次 〉

1. 들어가기	5. 재한일본인처의 코드스위칭
2. 한일 2언어병용자의 코드스 위칭 양상	5.1 코드스위칭 빈도
3. 분석자료	5.2 코드스위칭의 유형
4. 재한일본인처의 언어환경	5.3 코드스위칭의 사용례
4.1 개인별 2언어 사용 환경	5.4 타 한일 2언어병용자 그룹과의 비교
4.2 재일한국인 1세와의 비교	6. 맺음말

Key word : 재한일본인처(Japanese married woman residing in Korea), 코드스위칭 (code-switching), 외래성(foreignness)

## 1. 들어가기

재한일본인의 형성 시기는 다양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 중에는 줄곧 한국에 거주하며 약 70년간 한국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일명 ‘재한일본인처’로 불린다.

재한일본인처에 대한 연구는 한일 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8462)

\*\* 울산과학대 실무외국어과 조교수, 사회언어학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김응렬(1996), 김수자(2013), 김석란(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김응렬(1996)에 따르면 재한일본인치는 한일국교화정상 이후 한국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돌아갔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재한일본인치는 1983년 1,500명으로 추정되었으나 <부용회>1) 회원명부에 따르면 1990년대는 1,000명 전후로 파악되며 이들의 생활사를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연구의 큰 족적을 남겼다. 김수자(2013)에서는 그들의 삶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술하여 전하고 있으나 언어실태를 다룬 것은 아니며, 김석란(2007)은 그들의 국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의 언어사용 양상 특히 2언어 혼용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시기를 같이하여 해방 이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조선인) 즉, 재일 한국인의 언어행동에 관한 연구는 일본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식민지시대를 전후하여 일본에 정착한 재일한국인 1세를 비롯한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용언어(오고시 1983, 2005, 임영철 1993) 및 한일 양언어의 혼효적인 코드스위칭(code-switching) 연구(김정자 1994, 김미선 2003)가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재일한국인 1세의 언어행동은 일개인의 언어현상을 넘어 일정 커뮤니티 내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일본 다문화사회의 디아스포라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한일본인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이래 국내 거주자 재한일본인처 4명의 언어사용 실태를 밝히고자 그들의 한국어에 기반을 둔 코드스위칭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1) 부용회는 김응렬(1996:453)에 따르면 재한일본인처의 친목단체로, 부용회의 전신은 1962년에 조직되었으나 1966년에 부용회로 개칭하였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반일정책 등의 영향으로 일본인처들은 집회 등이 제한받았으나 그 후 서울과 부산에 각각 본부를 두고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주요 활동내용은 정기적인 월례집회를 갖고 회원들의 일본으로의 귀환을 돕거나 고향 방문 실현 및 일본정부의 지원을 전달하는 것 등이다. 2016년 현재 부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회원수는 극히 소수이며 월례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서울과 부산 각각 3명 내외였다.

## 2. 한일 2언어병용자의 코드스위칭 양상

한국어와 일본어 2언어병용자는 식민지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형성 시기 및 결혼·유학 등 형성요인도 다양하여 한일 2언어병용자는 여러 갈래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각 그룹의 한일 2언어병용자의 코드스위칭 양상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각 그룹의 코드스위칭 양상의 비교 분석은 그들의 바이링글리즘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지금까지 한일 2언어병용자의 그룹과 관련된 코드스위칭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일한국인 1세에 대한 연구(김미선 2003, 김정자 1994)가 가장 활발하다. 그 밖에 재일한국인 2세 이하(신창수 2001), 재일한국인 유학생(곽은심 2002)을 통해 재일한국인 1세와는 다른 유형의 코드스위칭이 보고되고 있다. 덧붙여 일본에서 유년기(임계기)를 보내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귀국자녀의 코드스위칭(곽은심 2012)이 또다른 형태를 보인다. 한국인의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코드스위칭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의 코드스위칭은 구마타니(1997)의 연구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 |                       |                                     |
|-----------------------|-------------------------------------|
| (예문1) <식민지:구마타니1997>  | 차 한 잔을 おごる한 것                       |
| (예문2) <식민지:구마타니1997>  | おちつく 못 했다                           |
| (예문3) <재일1세:김정자1994>  | 병원에 가するね/가した/뒤아する                   |
| (예문4) <재일1세:김미선2003>  | (장기의) 장군 했ちゃあかん                     |
| (예문5) <재일2세:신창수2001>  | 明日、日曜日인데 どこか 行って 遊び하자.              |
| (예문6) <재일2세:신창수2001>  | コミュニケーション하는 방법이 어렵게 되는가나라고 생각했다.    |
| (예문7) <유학생:곽은심2002>   | 막 怒る하고, 家賃도 못 내고 난리 냇잖아.            |
| (예문8) <유학생:곽은심2002>   | 나 그때 うとうと하고 있었거든.                   |
| (예문9) <귀국자녀:곽은심2012>  | 先生が 먼저 뺏어버려.                        |
| (예문10) <귀국자녀:곽은심2012> | 이백자 원고지 한 매에 삼천오백원とか 사천원とかもらったりするよ. |
| (예문11) <귀국자녀:곽은심2012> | 여기서 일 많이 하다가 가는 사람은 結構 인맥도 있고       |

- (예문12) <귀국자녀:곽은심2012>      그레가지고 別にメンバーじゃなくても  
土曜日は 가서 렛슨을 받을 수가 있거든.
- (예문13) <귀국자녀:곽은심2012>      私、手術했잖아
- (예문14) <귀국자녀:곽은심2012>      この子もなんかここ カサカサ해 갖고 혹시  
아토피가 해서.

식민지시대의 한일 2언어병용자의 코드스위칭은 한국어기반에 일본어 단어가 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재일한국인유학생의 코드스위칭과 유사하다. 즉, 차용되는 일본어는 그 형식이 명사이든 동사이든 부사이든 모두 의미요소만 차용되고 있다. 이들 두 그룹 모두 한국어가 모어로 확립된 성인이 일본어를 습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어의 의미요소만을 도입하고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법적인 요소는 대부분 한국어가 담당한다.

이에 비해 재일한국인 1세와 재일한국인 2세 이하 후손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기반언어 및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모달리티(서법) 표현 또는 시제표현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교차하여 혼용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1세의 경우는 단어보다 작은 형태소 단위의 코드스위칭(예문3, 4)이 일어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한일 코드스위칭에서는 술어부의 <한국어+する> <일본어+하다>의 형태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하다’와 ‘する’는 서술어를 생산하는 가능성이 높아 한일 2언어병용자의 다양한 그룹에서 볼 수 있는데, 어간에 올 수 있는 형태에 따라 그룹별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혼효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재일한국인 1세와 그 후손의 코드스위칭이다. 이에 비해 임계기를 일본에서 보내고 성장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귀국자녀의 경우는 문법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절(節)단위나 명사, 부사 등 제한적인 코드스위칭의 양상을 보였다.

한편, 재한일본인의 코드스위칭에 관한 보고가 있다. 한일국제결혼가정의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합체 사용 실태가 효도 유리카(2005)에 의해서 알려졌다. 여기서는 호남지역에 살고 있는 한일국제결혼 일본인 여성 94명을 대상으로 한 코드스위칭의 실태를 전하고 있다. 이들 그룹의 코드스위칭은 기반언어가 대부분 일본어이고 「한국어+する」의 형태에서 명

사의 차용과 한국어 용언 어간이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이는 재일한국인 1세와 같은 코드스위칭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집주에 가까운 커뮤니티 형성을 보이고 있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데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15) <재한일본인:효도2005>	そんなこと 반대したって意味がない
(예문16) <재한일본인:효도2005>	あまり 간섭しないでほしいわ
(예문17) <재한일본인:효도2005>	접수して来た?
(예문18) <재한일본인:효도2005>	キムチが 익었다ら 食べよう。
(예문19) <재한일본인:효도2005>	물이 끓었다ら 가스를止めてね。
(예문20) <재한일본인:효도2005>	これ、남았다ら 持って帰る?

### 3. 분석자료

해방 이래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처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문자화하여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족사항 및 조사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조사시 연령 (한국체제기간)	한국인 남편	자녀	조사시기
부산권	A씨	103세(70년)	2009년 사별	2015년 2월~8월
	B씨	90세(70년)	1995년 사별	
서울권	C씨	90세(70년)	1951년 이혼	2015년 2월~8월
충청권	D씨	85세(70년)	1950년 사별	

부산권 조사는 <부용화>의 월례집회에서 A씨, B씨를 포함한 6명<sup>2)</sup>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녹음분량은 3시간 30분가량이다.

2) 부산권 <부용화>의 월례집회는 부산지부의 회장인 A씨의 집에서 이루어져 A씨와 B씨, 필자, A씨의 지인, A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여 6명이 참가하였다. A씨의 지인은 과거 부산 일본총영사관의 한국인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이들과 오랜 교류가 있는 사이이며, 가족들은 식사, 다과 준비 등을 위해 함께하였다.

서울권 C씨와 충청권 D씨의 조사는 필자와 1:1로 진행되었으며 녹음분량은 각각 2시간 내외였다. 조사방식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A씨, B씨는 두 사람 사이에 왕래가 잦아 평소의 언어생활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C씨와 D씨의 경우도 대부분 대화 대상자가 한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일상의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는 데이터로 판단된다.

인터뷰내용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고 해방 전후의 이야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 대화참가자는 대부분 한일 2언어병용자였으므로 사용언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 4. 재한일본인치의 언어환경

### 4.1 개인별 2언어 사용 환경

재한일본인치의 개인별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용 환경에 대해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판정하였다.

〈표2〉 개인별 2언어 사용 환경

항목 \ 조사대상자	A씨	B씨	C씨	D씨
(1)내한 시기의 연령이 높은 정도 <sup>3)</sup>	33세 ■	20살 ■	20살 ■	15살 □
(2)남편 <sup>4)</sup> 과 결혼생활 장기간 정도(상중하)	상 ■	중 ■	하 □	하 □
(3)자녀의 일본어 가능자 유무	유 ■	무 □	무 □	무 □
(4)부용회 활동 정도 (상중하)	상 ■	중 ■	하 □	하 □
(5)일본 왕래 빈번한 정도 (상중하)	상 ■	중 ■	하 □	하 □
(6)부용회 외 일본인과 교류 정도 (상중하)	상 ■	중 ■	하 □	하 □
(7)일본 TV 시청 정도 (상중하)	상 ■	중 ■	중 ■	하 □
(8)일본어 문식력/문서작성 능력 (상중하)	상 ■	중 ■	중 ■	하 □

3) 조사대상자들의 내한시기를 비교해 보면 D씨는 해방 직전 지인(후의 남편)을 따라 한국 관광을 왔다가 해방되어 일본 귀국길이 막히면서 그대로 체류하게 된 경우이고 A씨, B씨, C씨 3명은 해방 직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게 된 경우이다.

4) 남편들은 모두 일본어 가능자이며 남편과의 대화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항목 \ 조사대상자	A씨	B씨	C씨	D씨
(9)한국에서의 생업 참여 정도 (상중하)	하 □	하 □	상 ■	상 ■
(10)한국인과의 교류 정도 (상중하)	하 □	하 □	상 ■	상 ■
(11)한국 TV 시청 정도 (상중하)	하 □	중 ■	중 ■	상 ■
(12)한국어 문식력/문서작성 능력 (상중하)	하 □	하 □	중 ■	중 ■

\*(■□□의 기호화는 상중하 등에 따라 표시하였다)

우선, (1)~(8)항목은 일본어 유지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이며 (9)~(12)항목은 한국어 습득과 유관된 항목이라고 할 때 A씨와 D씨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내한 시기의 연령으로 볼 때 언어습득 임계기가 지났지만 30대와 10대의 차이는 일본어 유지 능력과 한국어 습득 능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4)의 부유회 활동 정도에서도 1960년대부터 부유회 부산지구 회장으로 부유회를 통솔해왔고, (2)의 항목에서도 남편과 안정된 가족관계를 오래 유지했다. (5)와 (6) 항목의 경우에도 부유회 활동과 관련된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3) 항목의 자녀와도 일본어 대화가 가능한 등 현재는 일본어 사용이 50% 이상이다. 그 외 한국과 관련된 (9)~(12) 항목에는 모두 미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A씨의 경우는 일본어 능력이 매우 높은 데에 비해 한국어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B씨와 C씨의 경우는 B씨가 일본어와 더욱 친근한 환경에 있으며 C씨는 70년대 일본 첫 방문시에 일본어가 생각이 안 났을 정도로 한국에서 생업활동의 경험이 많고 한국어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으며 한국인과의 교우관계가 넓고 일본어 유지 능력보다는 한국어 능력이 앞선다.

D씨의 경우는 일본어 사용에 있어 음운적·문법적 요소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다름없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에서 한국 생활에서 이들의 2언어 사용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a)한국 및 한국어 관련 요소는 가족과 생업활동으로 형성되며,

자녀의 한국어 습득에 저해될까 가능한한 한국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b)일본 및 일본어 관련 요소는 부용회가 중심요소임을 알 수 있다.

#### 4.2 재일한국인 1세와의 비교

해방 이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1세의 커뮤니티는 오사카 이쿠노쿠(生野区)를 중심으로 지역적 집주(集住)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김지영(2005;141)에서는 반드시 집주가 아니더라도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재일한국인 1세는 부부, 자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가족적, 민족적, 이민사회적 커뮤니티 성격을 띠는 데 비해 재한일본인치는 국제결혼가정이므로 남편의 존재가 한국(인) 네트워크를 담당하여 한국생활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하지 경우는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a)집주 형식인가 아닌가

(b)이민가정의 성격을 지니는가 국제결혼가정의 성격을 지니는가

〈표3〉 재한일본인치의 커뮤니티 특성

재일한국인 1세	재한일본인치
집주 형식	유대 관계 조직
한국인과 일상적으로 접촉	일본인과는 <부용회>의 정기적 월례집회를 통한 제한적 접촉
가족적, 민족적, 이민사회적 특성을 지님	국제결혼가정의 성격을 지님

### 5. 재한일본인치의 코드스위칭

여기에서는 A씨, B씨, C씨, D씨의 2언어 사용 빈도와 코드스위칭의 유형 및 사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5.1 코드스위칭의 빈도

재한일본인치의 발화양상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일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언어 간 코드스위칭이 일어나는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화된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었다. 한 문장에 사용된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코드스위칭<sup>5)</sup>으로 3분류하였다.

개인별로 발화된 문장수와 각각의 사용언어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4> 개인별 사용언어

	A씨	B씨	C씨	D씨	합계
일본어 문장	145(42.4%)	37(11.5%)	1(0.2%)	3(0.4%)	186
한국어 문장	180(52.6%)	240(74.8%)	395(98.3%)	649(90.0%)	1464
코드스위칭 문장	17(5.0%)	44(13.7%)	6(1.5%)	69(9.6%)	136
합 계	342(100%)	321(100%)	402(100%)	721(100%)	1786

<표4>에 따르면 A씨의 경우는 전체 342개 문장 중 한국어 문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어 문장이며,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코드스위칭을 보인 문장은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일본어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코드스위칭은 B씨와 D씨의 발화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C씨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어사용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2 코드스위칭의 유형

이들의 코드스위칭에는 문장 간의 코드스위칭(문간(文間) 코드스위칭)과 문장 내에서 일어나는 코드스위칭(문중(文中) 코드스위칭)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문중 코드스위칭을 중심으로 절(節) 단위, 구(句) 단위, 단어 단위로 나누어 <표5>에 제시하였다.

우선 문중 코드스위칭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반언어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반언어는 단어보다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삼았고 특히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일본어기반과 한국어기반으

5) 성씨+さん 또는 일본 지명은 코드스위칭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는 기반언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표5〉 코드스위칭의 유형

				A씨	B씨	C씨	D씨	합계		
코드 스위칭의 분포	일본어 기반	단 어	명사	4	1	-	-	15	26	
			동사	2	3	-	-			
			간투사	2	-	-	-			
			접속사	-	3	-	-			
		구	1	2	1	-	4			
		절	3	2	-	2	7			
	합 계				12	11	1	2		
	한국어 기반	단 어	서술 어	명사	-	21	3	7	93	108
				(J명사)+하다	-	3	-	1		
				(J명사)+되다	-	2	-	-		
			형용사+하다	-	-	-	1			
		부사	-	2	1	-				
		간투사	-	-	-	50				
		조사	-	-	-	2				
		구	2	3	1	3	9			
절	3	-	-	3	6					
합 계				5	31	5	67			
기반언어 불명				-	2 <sup>6)</sup>	-	-		2	

〈표5〉에서 한국어기반의 코드스위칭이 월등하게 많아 역시 이들의 일상생활 언어는 한국어임을 알 수 있다. 일본어기반에서는 A씨와 B씨의 언급내용에서 다양한 유형이 보였고 한국어기반에서는 B씨와 D씨의 언급내용에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개인별 코드스위칭의 유형을 살펴보면, 재한일본인치의 일상 언어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며 그나마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는 A씨였다.

6) 기반언어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B씨 : その時は あの~ 飛行場가 돼가 引越し하고 新しい うちに入ってた. (42)

B씨 : 그레가 저저 馬も 証書類 取って うま도 証書類 全部 とって 그레가지고 막 오는데 ... 쌀로 몇 십포대 달라하대예(149).

다양한 코드스위칭의 유형을 보인 것은 B씨였으나 대부분이 한국어에 기반을 둔 경우이고, 그 중에서도 명사의 코드스위칭이 가장 많은 데서 한국어의 통어론적 구조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씨의 경우는 일본어 명사와 한국어의 ‘하다, 되다’를 결부시킨 ‘일본어 명사+하다(되다)’의 형태가 한국어기반에서 5회 사용되었는데, 한일 코드스위칭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이나 본 조사에서는 주로 B씨의 발언내용에서 나타났다. C씨의 경우는 D씨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나 곳곳에서 명사, 부사, 구 단위 등의 코드스위칭이 보였다. 이에 비해 D씨의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어기반의 코드스위칭을 보였는데 일본어에서 필러(filler) 역할을 담당하는 ‘あの~’ 간투사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점과 서술어에서 유일하게 형용사의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

### 5.3 코드스위칭의 사용례

#### a. 문장 단위-문간(文間) 코드스위칭

문간 코드스위칭은 A씨와 B씨에서만 나타났는데 A씨가 5회, B씨가 6회였다. 다음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언어능력의 부족에 의한 코드스위칭이라고 보다는 한일 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1) A씨 : 천만원 もったいないじゃん[아깝잖아]. // 안 한다. // だからといって  
[그렇다고해서] (129)7

(예2) A씨 : あの~会には 休む あれ ないんですけどね [저기 모임에는 쉬는 그거  
없을 텐데 말예요]. // 안 놀고 꼭 저 뭐시기 일찍 올긴데 (142)

(예3) A씨 : さんじゅうしちかね. [서른일곱인가] // 이집에서 그래하는데 여기는  
내집이고 ○○는 집이 없다 아임니까. (168)

(예4) B씨 : 친정이 누구카문은, 조카. // にいさんの子供. [오빠의 자식] (15)

(예5) B씨 : 한국어는 뭐는 나와가지고 살리카카네 배워야카케네. // 自然と まま.  
[자연스럽게 그냥] (29)

(예6) B씨 : 아 양로원 갔다고. // あそこにおるんだって. [거기에 있다고] (125)

7) ( ) 안의 번호는 개인별 발화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한 번 발화에 여러 문장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발화한 문장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7) B씨 : 집 가계네예. // ひやくしようになるのに うまと うしは なくてはなら  
ないでしょう. [농사를 지으니까 말과 소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149)

### b. 절 단위

문중(文中) 코드스위칭 중 절 단위의 코드스위칭은 언어를 바꾸어서 반복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인용절 부분의 코드스위칭, 주절과 서술절 사이에서 코드스위칭을 일어나는 경우 등이었다.

(예8) A씨 : 신문소설 저 그사람 小説家 何と言ってたかな. [소설가 뭐랬더라] (93)

(예9) A씨 : 日本 に行ってね, それで [일본에 가서 그래서] 이를 해 놓는다카고  
それで 待ってたのに [그래서 기다렸더니] (163)

(예10) B씨 : ○○さんの 会でなくて ××さんの[○○씨의 회도 아니고 ××씨의  
…××さん, 짜깁한 ××さん 안 있더냐. (19)

(예11) B씨 : 踏み切り[건널목] 거 내려바 주면 안다 というの[라는 거야]. (128)

(예12) D씨 : 나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日本 の人<sup>8</sup>はあんた こちらの人より あ  
んた<sup>9</sup>きれいよ. [일본인은 당신이 이쪽 사람보다 이뻐요]. (105)

(예13) D씨 : 요건 이거는 大事なものだから なつかしいのときに使うの. 今頃は  
使えないよ. [귀한 거니까 그리울 때 쓸거야. 지금은 안 써] (108)<sup>8</sup>

### c. 구(句) 단위

문중(文中) 코드스위칭 중 구(句) 단위의 코드스위칭은 명사구와 동사구, 부사구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명사+조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를 이루기도 한다.

(예14) A씨 : 몇 십년동안에 시달려가지고 いやんなっちゃったよ. [진저리가 나]  
(29)

(예15) A씨 : 회에 오시면 雑談 できるんだけどね. [얘기도 할 수 있는데] (130)

(예16) B씨 : 그럴 때는 福島のおおやまだ. [후쿠시마의 오야마다] (146)

(예17) B씨 : きゅうで [세는 나이로] 합니까? (2)

8) D씨의 일본어 사용에 있어서는 이 같은 문법적 예러도 보였다.

- (예18) B씨 : まあ こうしたら[그냥 이렇게] 달라드는 거라. (150)  
 (예19) C씨 : 〇〇さんは[〇〇씨는] 여기 せき[국적] 없어요. (125)  
 (예20) C씨 : こっちの方が[이쪽이] 약간. (14)  
 (예21) D씨 : 今は[지금은] 종이에다 싸주지만 그 전에는 (65)  
 (예30) D씨 : 이쁘다고 年寄りの[나이든] 일본사람은 깨끗하고 (105)

#### d. 단어 단위

##### (1)명사 CS

명사의 코드스위칭은 일본어기반에서는 5회에 불과하나 한국어기반에서는 31회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B씨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徴用[징용], 空襲[공습], 終戦[종전]’ 등의 과거 이야기와 일상적으로 쓰이는 ‘入れ歯[틀니], 踏み切り[건널목]’ 등의 경우는 익숙한 일본어로 코드스위칭하는 현상을 보였다. C씨의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어사용으로 일관하나 일본어 명사 ‘せき[국적]’ 등을 차용하거나 ‘세멘조, 팽깁’ 등의 한국인에게 널리 통용되는 일본식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D씨의 경우도 ‘するめ[마른오징어]’와 같은 익숙한 일본식 명사 외에도 ‘新興町[신흥마을], お墓[묘], はだ[피부],’ 등의 명사 차용을 보였다.

- (예31) A씨 : 스무살から来たんだからね. [스무살부터 왔으니까] (10)  
 (예32) B씨 : 入れ歯[틀니] 넣으면 씹우고 하고 안 되잖아. (108)  
 (예33) B씨 : 그래 踏み切り[건널목] 건너니까 아 인자 맞아 카대예. (118)  
 (예34) B씨 : 고게 ちょうよう로[징용으로] 갔거든. (135)  
 (예35) B씨 : 空襲가[공습이] 때~ 오고 하니까 (135)  
 (예36) B씨 : そこ에다 집을 지가지고[거기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143)  
 (예37) B씨 : うま가[말이]예, 집 가께네예 (149)  
 (예38) C씨 : 〇〇さんは[〇〇씨는] 여기 せき[국적] 없어요. (125)  
 (예39) D씨 : 군산, しんこうまち[신흥마을], 군산서 대천으로 와, (2)  
 (예40) D씨 :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어서 お墓[묘] 가서 묘에 가서 절하고 (7)

##### (2)서술어 CS

서술어의 코드스위칭은 명사에 비해 높지 않으나 (예41~43)은 동사의 코드

스위칭이고 형용사는 D씨의 사용례에서 보인 (예44)로 ‘일본어 형용사+하다’의 형태가 유일하며, 그 외 (예45~50)은 ‘일본어 명사+하다(되다)’의 형태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사적인 구조에 어긋나는 ‘일본어 용언+하다(되다)’의 구조는 부정형의 ‘きたなく+ない’의 경계에서 코드스위칭이 일어나 재일한국인 1세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예41) A씨 : だけど, 가문는 人 連れていって 交代で連れていったから. (71)

(예42) B씨 : 東京 가가 迷子になっちゃったんだよ. [도쿄 가서 길을 헤매게 됐다] (128)

(예43) B씨 : そうして あの人について行ったら、きゅうじょう[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가면 궁성] 찾아주고. (128)

(예44) D씨 : 얼굴이 깨끗하구 きたなく 안 헐러구[지저분하지 않으려구] (105)

(예45) B씨 : 처음에 저 里帰り했거든[고향방문했거든]. (23)

(예46) B씨 : 저저 습한다고[모임한다고] 해서 그래 (26)

(예47) B씨 : その時は あの~ 飛行場가 돼가 引越시키고 그 때는 저~ 비행장이 돼서 이사하고 (142)

(예48) B씨 : 그런데, 저저저~ 終戦돼[종전돼] 가지고. (144)

(예49) B씨 : 그 へい 閉鎖돼[폐쇄돼] 있더라꼬. (145)

(예50) D씨 : 그 あの~ しょうばい허지, 저 냄새[냄비] 같은 거 그거 파는 사람은 (3)

### (3)간투사 CS

간투사의 코드스위칭은 일본어기반에서 한국어 간투사가 차용되는 경우는 A씨의 발화내용에서 2회 보였다. 한국어기반에서 일본어 간투사가 차용되는 경우는 D씨의 발화내용에서 50회나 다용되어 입버릇처럼 습관화되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표출 즉, 외래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외래성’은 네우스트프니(1985) 등이 주창한 개념으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접촉장면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문화적 요소를 ‘외래성’이라고 지칭한다. 외국인이 외래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와 숨기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D씨의 경우 높은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언어사용에 있어서는 외래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D씨는 읍내 단위의 작은 마을에서 70년간 생활해 왔기 때문에 누구나 D씨가 일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D씨의 언어사용에 있어서는 외래성을 그대로 표출하

고 있었다.

(예51) A씨 : 저 뭐시고 甲府でも一回したんだから[고후에서도 한 번 했으니까] (126)

(예52) D씨 : 한국말도 잘하구 あの~ 한국노래도 잘하구 그런다고 (7)

(예53) D씨 : 아주 막 あの~ 한국말로 말하자면 막배라 온살이야. (41)

(예54) D씨 : 그리고 옛날에 あの~ 일본사람들 죽어서 공동묘지에다 일본사람들 죽어서 묻은 거 あの~ 일본에서 아버지같은 아버지 빠다귀 찾아다가 あの~ 화장해서 갖고 간다고 일본사람들이 오면 군청 가잖여. (69)

#### (4)그 외 CS

그 외 부사, 접속사, 조사의 차용되기도 했는데 부사는 한국어기반에서 일본어 부사로 교체된 경우만 3회 나타났고 접속사의 코드스위칭은 일본어기반에서 한국어 접속사가 차용되는 경우만 3회 보였는데, B씨의 언급 내용에서만 나타났다. 조사의 코드스위칭은 D씨의 언급에서 나타났다.

(예55) B씨 : どうせ[어차피] 죽었는 사람인데 사는 거스면[것이] 살리는 거스면 모르지만 (112)

(예56) B씨 : 그런데, 兄さんおったのは 腹違いの兄弟だった。[형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제였다] (137)

(예57) B씨 : 그래가지고 …또 一匹 とられるから[한 마리 빼앗기니까] (150)

(예58) D씨 : 근더 인자 모이는 날이면 あの~ 예산でも, 서울でも[예산이든 서울이든] 다 한꺼번에 서울 넓은 데가 있었어. (5)

#### 5.4 타 한일 2언어병용자 그룹과의 비교

재한일본인치의 코드스위칭 중 서술어의 혼용적인 사용은 출현빈도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한일 2언어병용자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타 그룹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그룹별 혼합형식의 사용실태

		재한일본인처		한국인 유학생	재일 한국인 1세	재한 일본인
		B씨	D씨			
한국어 기반	명사+하다	○	△	○	○	×
	용언+하다	×	△	○	○	×
일본어 기반	명사+する	×	×	×	○	○
	용언+する	×	×	×	○	○

이에 따르면 한국인유학생은 오직 한국어기반에서 ‘-하다’의 서술어에 의존하여 코드스위칭을 보이지만 재일한국인 1세는 한국어기반과 일본어기반을 오가며 ‘-하다’와 ‘-する’로 혼효적인 코드스위칭을 보인다. 이에 비해 효도 유리카(2005)에 제시된 재한일본인의 코드스위칭 양상은 일본어기반에서 한국어 명사 또는 용언을 차용하고 ‘する’가 문법적 기능 및 모달리티(서법)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재한일본인처의 코드스위칭은 한국어기반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서술어 역할은 ‘-하다’가 담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어 사용력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D씨의 경우는 한국어기반에서 명사의 차용뿐 아니라 용언의 차용도 보였는데 1회 출현에 불과하여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유학생의 경우, 용언의 차용은 대부분 기본형으로 차용되는 데에 비해 활용형태가 쓰이고 있어 혼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맺음말

재한일본인처는 해방 이래 한국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는 재한일본인처의 친목단체인 부유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재한일본인 처 사이의 대화에서도 일본어사용률보다 한국어사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코드

스위칭 현상도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일본어 차용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코드스위칭의 양상에 있어서 한국어기반으로 한 명사의 차용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발화 도중에 일본어 간투사를 삽입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종의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표출로 받아들여지는 코드스위칭도 보였다.

또한 한일 2언어병용자의 코드스위칭 형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어+하다』와 『한국어+する』의 형태로 볼 때, 재일한국인 1세의 코드스위칭에서는 두 가지 유형 모두 빈번하게 출현하며 ‘하다’와 ‘する’의 어간으로 명사는 물론 용언의 활용형태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재한 일본인치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어기반에서 코드스위칭이 일어나고 어미의 활용은 ‘-하다’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하다’ 앞에 놓이는 어간은 일본어 명사의 차용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므로 문법적 위화감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어 형용사가 활용형태로 차용되는 유형도 관찰되어 재일한국인 1세에게서 보이는 혼효적인 양상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는 코드스위칭 양상을 보였다.

### <参考文献>

- 김석란(2007) 『재한일본인아내의 국적에 관한 연구-해방이전 결혼자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第36輯 pp.339-351
- 김수자(2013) 『재한일본인치의 경계인으로서의 삶과 기억의 재구성』 『이화사학연구』 제46집 pp.351-378
- 김응렬(1996) 『재한일본인치의 생활사』 『한국학연구』 제8집 pp.453-503
- 金静子(1994) 『일본내의 한·일 2언어 병용화자(한국인)의 Code-Switching에 대하여』 『二重言語学会誌』11 이중언어학회 pp.71-96
- 任榮哲(1993) 『在日・在米韓国人およ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 くろしお出版
- 生越直樹(1983) 『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 『言語生活』376 筑摩書房 pp.26-34
- \_\_\_\_\_ (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変化』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pp.11-52
- 郭銀心(2002) 『韓国の帰国子女の日本語と韓国語間のコード・スイッチングの形態』 『社会言語科学会第10回 研究大会予稿集』 社会言語科学会 pp.42-47
- \_\_\_\_\_ (2012) 『韓日バイリンガルのコード・スイッチングに関する一考察』 『일본어교육연구』 제24집 pp.159-178

- 金美善(2003)『混じり合う言葉—在日コリアン—世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月刊言語』  
32-6 大修館書店 pp.46-52
- 金智英(2005)『在日コリアン1世の否定表現の運用』『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和泉書院  
pp.141-158
- 熊谷明泰(1997)『朝鮮語ナショナリズムと日本語』『ライブラリ相関社会科学4—言語・  
国家、そして権力』新世社 pp.164-193
- 申昌洙(2001)『総聯系在日コリアン2世以降の世代の言語意識と言葉の使い分け』『社  
会言語科学会第8回研究大会予稿集』社会言語科学会 pp.282-283
- 兵頭百合香(2005)『在韓日本人における言語接触過程の第二言語の影響』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논문
- Neustupný,J.V.(1985) Problems in Australian-Japanese contact situations. In J.B. Pride (Ed.)  
*Cross-cultural encounters: communication and miscommunication*. Melbourne:  
River Seine. pp.44-84

접 수 일: 2016년 12월 31일  
심사완료: 2017년 01월 30일  
게재결정: 2017년 02월 01일

<Abstrac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ode-switching based on  
Korean of Japanese Wives in Korea**

The residence of the Japanese married woman residing in Korea had the longtime history, but I was tinged with character of the mixed marriage home and did the social network with Korea and the Korean through occupation activity with a family and a relative and understood that the social network with Japan and the Japanese ran life in Korea through a friendship group called <Lotus Gathering>.

Most of the daily life languages of the Japanese married woman residing in Korea used Korean, and a base of the code-switching was often a Korean base, too.

In addition, the case that '-hada' was in charge of as for the utilization of the end of a word was most of because there was much code-switching with the Korean base in the case of Japan married woman residing in Korea judging from "Japanese+hada" which was the form that was characteristic in a form of the code-switching of the person of 2 language combination of Korea day most and a form of "Korean+hada". In addition, the borrowing of the Japanese noun was frequent in the stem of a word put before '-hada', and the grammatical sense of incongruity remained in a minimum.